

무용수 직업 능력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Study on Comparative Recognition Regarding Professional Dancers' Abilities

김 이 경, 이 재 정
숙명여자대학교

Kim lee-kyung*, Lee jea-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대에 특히 무용부분의 사회진출과 취업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대학과 정부차원에서 대학 평가 등을 통해 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능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전문적이지만 취업을 하기 위한 발판이나 환경에는 제도적,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문제 의식화하여 본 연구는 무용수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교수자, 학습자, 전문무용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4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 관련 인식도와 직업 관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어려움에 대한 체감도가 교육가와 무용수는 높았으나 예비무용수들은 낮게 나타났다. 교육가들과 무용수들은 취업을 위해 전공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인턴십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예비무용수들은 무용 외에도 다양한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I. 서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저조한 경제성장과 원활하지 않은 순환이 국가와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사회로 출발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깨에는 자연스레 막중한 부담이 실리게 되었다. 대학에서 이는 어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상경계열 등 전공을 불문하고 직면하는 문제이며, 예술대학 역시 피해갈 수 없이 실업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무용 전공생들의 경우 공급 증가에 상응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 대학 교육의 비현실성, 무용수로 발돋움을 하더라도 빠른 은퇴를 피할 수 없는 점 등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용계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서 무용 현장의 교수·학습자 및 전문무용수들이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입장과 인식을 파악하며,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무용 현장의 교수·예비무용수 및 전문무용수들이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입장과 인식을 파악하며,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집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연구대상



▶▶ 그림 2. 무용대상자 설명

II. 연구목적



▶▶ 그림 1. 연구대상자

무용 직업 능력 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인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영역을 무용교육자, 전문무용수 그리고 전문무용수 및 교육자를 희망하는 예비 무용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도구

직업 능력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직업 능력 교육 현황을 파악 설문지

구성지표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경력, 종사(희망)분야	4
직업능력 인식도	- 취업에 대한 어려움 - 어려움을 겪는 이유 - 취업 시 전공의 일치도 - 소속 교육기관의 취업 과정 및 제도	4
직업능력 요구도	-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곳 - 개선되어야 하는 점 - 취업 준비 기간 및 희망 급여	4

3. 분석방법

무용교육자와 국·공립 전문무용수, 예비무용수 집단의 무용 직업 능력 교육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론

연구는 현장에서 전공생들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용 교수자와 예비무용수, 그리고 최근 무용단에 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무용수의 직업 인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무용 직업능력 인식도 및 요구도 분석 결과 무용교육 현장과 실제 취업현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용전공생들의 취업에 관한 연구는 취업의 대상이 되는 무용전공생은 물론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하는 교육자들의 의견, 최근 국·공립 단체에 취업한 전문무용수들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 또한 반영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예비무용수들은 취업 관련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기 쉽지 않은 반면 교육가와 전문무용수는 취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실의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교육가들과 무용수들은 취업을 위해 인턴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국·공립 무용단의 인턴제도 정착이 선행 되어야 인접 분야로의 진출이 이뤄질 것이며, 그 분야의 취업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무용 채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합의점이 제시되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1]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 나경아, 정윤경 “교육과정에 따른 무용전공자의 사회진출 현황 분석”, 한국예술연구, 제11권, pp. 120, 2015.
- [3] 문지영, “무용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따른 자기전공 교과목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 박윤희,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환경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5] 박재민 “대학 졸업생의 직업선택과 임금 수준”, 기술혁신학회지, 제14권, 제 1호, pp.22-39, 2011.